2013년도

한국자격중앙협회

아동심리상담사

Child Psychology Counselor

(실기 및 실제)

※ 아동법은 아동의 연령을 0~18세로 규정,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연령을 9~24세로 규정 ⇛ 9~18세까지는 아동인 동시에 청소년.

Ⅰ.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Ⅱ. 아동학대의 원인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부모 요인을 살펴보면, 나이가 어리고 안정되지 못한 부모들은 아동의 행동이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해 아동학대를 쉽게 행하게 되고 건전한 가족 관계의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아동을 키울 것인가를 잘 모르거나 건전한 가족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 한마디로 아동 양육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아동 학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로 인해 아동이 기대수준에 못 미치게 될 경우, 부모의 잘못된 아동관(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권리 의식 부족), 경제적인 어려움과 실직, 잦은 병치레, 가정불화 등 가정 내 위기, 부모의 정서적인 욕구 불만, 아동양육의 부담을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나 이웃, 친구가 주위에 아무도 없을 경우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린 시절 부모에게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 부모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등의 경우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로 아동요인을 꼽을 수 있는데, 아동요인은 학대의 유발요인인지, 학대로 인한 결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 미숙아, 기형아
만성 혹은 급성질환아
신체적·정신적·기질적으로 특이하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운동 및 언어 등 발달이 늦은 아동
심하게 보채거나 밤에 잘 자지 않는 아동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아동
사회적 반응의 결핍, 고집스런 울음과 외모
수유의 어려움
분리 불안의 결함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무반응, 겁이 많음
적대적 행위, 충동적 특성, 폭력적 행동, 고집이 셈
대인 관계에 둔감하고 매력이 없음, 운동 조절 결함

그러나 위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아동들은 부모나 양육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부모들이 쉽게 지치게 된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아동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아나 기형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부모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세 번째로 가정적.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정적·사회적 요인은 가족관계 및 구조의 문제, 사회 전반의 분위기 등이 포함되며, 가족 구성원 간에 갈등이 존재하거나 가족 상호작용이 약하여 아동학대가 발생 하거나 미성년 가족, 한 부모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등 가족구조의 특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양육에 대한 지식의 부족, 높은 스트레스, 가족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의 결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고립 및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여되거나 신체적인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의식,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의식, 체벌이나 훈육의 의미가 포함된 폭력은 필요하고 정당하다는 관념 또한 아동학대의 원인 중 한가지라고 볼 수 있다.

Daum tv팟 - 아동학대 관련 동화입니다 - 동영상
-아동에게 콩쥐 팥쥐 이야기로 아동학대를 설명해주는 동영상 신체, 정서, 방임, 성학대로 나누어서 설명해 줌

Ⅲ. 아동학대의 유형과 증상

1) 신체학대-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우발적 사고를 제외한 모든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호)

① 타박상 · 골절상 · 찰과상과 같은 상처
② 머리의 상처
③ 몸 내장의 상처. 이것은 의료 검사를 통해서 알아낸다.
④ 수동적 행동
⑤ 과도한 공격적 행동
⑥ 신체적 접촉을 두려워하는 것
⑦ 부모나 보호자를 무서워하는 행동
⑧ 말을 잘 못하는 행동
⑨ 퇴행적 행동
⑩ 호기심이 없는 것
⑪ 부모나 성인이 해를 당했다고 보고하는 것

2) 성학대- 성기나 기타의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여 강간, 성적행위, 성기노출, 자위행위, 성적 유희 등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으로 정의한다. (아동복지법제29조 제2호)

① 성기나 항문 부분에 상처가 있는 것
② 속옷이 찢어지거나 더럽거나 피가 묻어 있는 것
③ 성적으로 전염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
④ 여성의 외음부가 부풀어 오르거나 빨갛게 된 것
⑤ 조기 임신

3) 정서학대-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구속, 억제 또는 감금, 언어적 또는 정서적 위협, 기타 가학적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명백하게 아동에게 가해진 잔혹하고 하대적인부당한 대우를 포함하여 신체적 혹은 성적학대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행위,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에게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상업적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 제3호)

정서학대는 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손상시키고 자신감을 잃게 하거나 위축되게 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인격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아동이 성장하여 사람들과 성공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한다.

① 보호자가 아동에게 사랑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주지 않거나 위협하는 것
② 감금하는 것,
③ 소리 지르는 것
④ 집밖으로 쫓아 내는 것
⑤ 흉기로 위협 하는 것

4) 유기 및 방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 제4호)

방임된 아동은 늘 불행해 하거나 위축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건강상의 문제나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① 오랫동안 성인의 감독 없이 지내는 것
② 개인위생이 불량한 것
③ 의료가 부적절한 것
④ 필요한 의료보호를 제공 받지 못하는 것
⑤ 배가 고프거나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것
⑥ 무기력 · 무감각
⑦ 학교성적이 나쁘거나 학교를 자주 결석하는 것
⑧ 비행

Ⅳ. 아동학대 현황

▶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06년도 아동학대 상담신고사례를 분석,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발간한 '2006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학대아동보호사례의 80.9%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전체 학대아동보호사례의 83.2%를 차지했다.

또한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이 가장 높은 비중(39.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아동의 연령은 만7세~12세가 50.2%,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8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건수를 파악한 결과 방임이 2,035건(39.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1,799건(34.6%), 정서학대 604건(11.6%), 신체학대 439건(8.4%), 성학대 249건(4.8%), 유기 76건(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각각의 아동학대 사례유형에 모두 포함시켜 살펴보았을 때, 방임이 2,842건(38.8%)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정서학대 2,182건(29.8%), 신체학대 1,827건(24.9%), 성학대 372건(5.1%), 유기 106건(1.4%)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6년 동안의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변화추이를 분석해 보면 방임과 중복학대가 매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방임의 경우 전체 보호건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방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나, 현대사회의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가정해체 증가 등으로 인한 양육환경의 변화, 사회의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빈곤계층의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8,903건으로 2005년 대비 11.3% 증가했고, 학대아동 보호건수는 5,202건으로 12.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고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아동보호건수는 학대아동보호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각종 교육과 홍보 및 학대아동보호망 확대('05 : 39개소→'06 : 43개소)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율과 보호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아동인구 1,000명 당 학대 아동 보호율이 '06년 0.48명('05 : 0.42명, '04 : 0.35명)으로 미국 11.9명('04), 일본 1.6명('05)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어 아직 발견되지 못한 잠재적인 학대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학대받는 아동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Ⅴ. 아동학대 체계 단계

① 신고 및 접수 단계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지정하고 있다. 이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교육기관의 교원, 의료기관의 의료인, 사회복지기관의 상담원 및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외에도 경찰 등 사법기관, 행정기관 그리고 민간부분의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1391(아동학대신고전화) 전화로 24시간(공휴일 포함) 신고할 수 있다.

②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단계

아동학대신고를 받은 기관의 직원 또는 경찰은 학대사실 및 피해아동의 위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나간다. 편장조사결과 성 학대, 신체 학대 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아동의 안전을 위한 비상조치 및 응급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피해아동이 보호자도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18조 2항에 의거 아동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응급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한편, 3일 이상의 장기간 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 10조 1항에 근거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단순사례, 잠재적 위험사례, 일반사례로 판정될 경우 교육이나 모니터링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계획 · 제공하게 된다.

③ 서비스 제공단계

이 단계에서는 학대받은 아동이 원가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 아동에 대한 입양이나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로의 입소 등을 계획(아동복지법 제 11조와 제12조에 근거)하게 된다. 한편, 가정으로 복귀되는 경우, 학대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 등과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하여 학대아동 가족의 욕구와 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입전략의 수립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④ 종결 및 사후관리단계

이 단계에서는 설정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제공된 서비스가 효과적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제공된 서비스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계획·제공하거나,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한편, 성공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종결에 이르게 된 사례의 경우, 이러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종결 후 6개월 정도의 추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 나간다. 한편, 타 기관에 의뢰한 사례의 경우에도 해당기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본다.

Ⅵ. 아동학대 아동과 가족을 위한 치료

1) 아동학대 아동과 심리적 상처 회복과정 관계

(1) 치료적 친밀감 형성하기

첫 번째 단계는 치료적 친밀감 형성하기로, 치료자는 아동과 긍정적인 치료관계를 세워야만 한다. 이는 신뢰감을 고무시킬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안전하고 양육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아동에게 덜 위협적이면서 그리고 심리적 상처에 특별히 초점을 두지 않고 아동이 치료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며 감정을 확인하고 경계를 탐색하기 시작하도록 도와야 한다. 심리적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적절한 경계를 가지는 데 전형적인 어려움을 보인다.

학대받은 아동은 흔히 다른 사람을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손상을 받으며 흔히 타인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의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아동은 느슨한 경계를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믿게'되는 반면, 또 어떤 아동들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게 된다.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은 심리적 상처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과정이 얼마동안 지속해야 할지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심리적 상처의 해결은 전형적으로 단기치료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각 아동의 욕구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첫 단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아동에게 또 다시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

(2) 심리적 상처 탐색하기

두 번째 회복 단계는 심리적 상처를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하기이다. 이 단계는 심리적 상처의 경험과 관련 있는 "비밀"이나 기억, 악몽 그리고"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사람"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동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치료에서 매우 어렵고도 많은 시간을 요하는 과정이다. 아동이 자신의 심리적 상처를 회상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자신이 치료의 시작 단계로 되돌아 왔음을 안다.

아동의 신뢰에 대한 기초는 아동이 특정 부분의 심리적 상처에 대한 경험을 회상함으로써 무너지기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는 치료자에게 불신을 투사시킬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아동은 오랜 시간 이전의 경험과 지금의 현실을 구별할 수 있는 인지적 수준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치료자가 아동에게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아동은 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동은 그간 치료자와 쌓아왔던 신뢰의 토대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면담자는 보다 안전한 라포 형성 활동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할 것이다.

(3) 자아감 회복하기

세 번째 단계는 자아감을 회복시키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심리적 상처로 인해 생긴 다양한 측면의 죄책감과 수치심이 나타나는 과정 상처받은 감정다루기 그리고 계속되는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적정한 기술의 발달 등이 포함된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흔히 아동의 자아감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단계는 이와 같이 어려운 회복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아동을 도와서 숙달감과 통제능력이 증가하고 신뢰감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학대경험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자아 존중감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자아를 회복하는 것을 심리적 상처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일생을 통한 치료과정이 될 수 있다.

(4) 마지막 단계는 아동이 보다 미래 지향적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아동이 자신의 기나긴 회복과정을 탐색하는 동안, 지금 여기(here and now)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성취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 단계에는 아동이 지금까지 성취한 것을 고찰할 뿐 아니라 아동이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와주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심리적 상처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동이 스스로 희생자의 역할을 확인하게 되면서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통제감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도 있다. 아동이 지금 그리고 여기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목표설정을 다루는 데 필요한 학습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이 자신의 과거에서 희생자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건강한 생존자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한다.

2) 아동학대 아동과 가족을 위한 구체적 치료기법

(1) 방임 및 신체적 · 정서적 학대 치료

① 개인치료

아동방임 및 학대가 발생하는 주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비정상적인 기능과 양육상의 결함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심리치료를 행하는 등의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가정환경 개선 및 가족기능 향상, 부모역할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었다. 하지만 아동을 문제가정에서 분리하여 일시적으로 보호하거나,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하고 치료하는 등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대응 방법이 학대 아동당사자의 아동학대 후유증을 비롯한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결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기존의 접근법에서는 특히 학대아동을 우선 의학적 관점에서 신체적 손상이 없는지를 살펴보아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시 한다든가 혹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동의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아동을 부모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시켜 아동을 별도로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데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어 부모는 아동을 별도로 c치료하게 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거나 강하게 저항하는 일이 발생하며 아동역시 가정과 부모의 춤을 떠나 일시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함으로 인해 다른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향후 아동이 보일 수 있는 심리적 혹은 정서적 상처 또한 깊을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놀이치료

어린 아동의 경우 자신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자신을 학대한 사람이나 대상을 표현하는 사물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주로 놀이과정을 통해 학대사건을 간단하게 재구성한다. 아동은 고통을 지각할 때까지 이러한 놀이를 반복하게 되며 상당수의 아동들은 학대를 받은 후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좀 더 나이든 아동들은 학대경험을 상징과 은유를 상용하여 놀이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만일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학대받은 아동들은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비난하게 아동들은 자신과 자신의 손상된 신체를 나쁜 것으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들이 놀이과정 속에서

주로 나타내는 주제는 다치게 되는 것에 대한 공포. 학대로 인해 겪게 신체적 고통과 외모가 손상되는 것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 상실, 무력감과 분노 등이다.

이처럼 아동이 학대를 경험함으로써 받게 되는 상처내지 손상은 신체적인 부분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한다. 특히 치료대상이 아동이므로 언어적 심리치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학대받은 상당수의 아동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자신의 내적 감정이나 상상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 나타내기 때문에 놀이가 유용하다. 즉, 대화로 주로 하는 전통적 심리치료로는 아동의 불안한 마음과 공포, 적개심, 분노의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놀이치료는 자연스럽게 놀이라는 매개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아동이 학대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불안감을 덜 느끼게 하면서 아동의 정신적 충격을 서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놀이치료는 학대아동이 받은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누적된 스트레스를 일차적으로 극복하고, 향후 왜곡되고 지연된 심리 사회적인발달을 교정하거나 예방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필요하다.

② 집단치료

상담 혹은 치료는 원래 개인을 단위로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성장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잡단이 지닌 치료적 힘의 효율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집단상담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집단상담 및 치료를 통하여 참가자들은 서로에게 정서적유대감 및 소속감을 느끼며 안전하고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 새로운 행동을 연습하고 그 행동에 대한 지지를 받게 된다. 그리고 집단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타인을 관용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알게 되고 이를 존중하게 되며 그 차이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또한 집단에서 다양한 참가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타인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대인관계 양식과 사회기술 양식을 학습하는 경험이 된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치료를 실시하게 될 경우 먼저 고려해보면 좋은 점은 학대를 받는 개별아동의 치료를 어느 정도 실시한 뒤 아동이 집단에 소속이 되어 또래들과 함께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아동이거나 그보다 어린 아동인 경우 대상이 아동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호작용 놀이를 통한 집단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③ 가족치료

가족치료는 개인치료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가족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접근하는 심리정신치료의 기법이다, 아동학대 문제에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할 때 간과 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가족의 맥락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확대하는 것은 부모의 개인적인 병리적 성격특성 사회문화적 요소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자녀와부모의 상호작용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등과 같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같은 영역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단순히 희생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하거나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및 치료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

가족치료의 기본적 접근은 한 가족원에게서 나타나는 문제가 그 개인에게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그 개인을 포함한 가족전체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그 개인의문제로 표출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치료의 입장은 개인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개인을 포함한 가족전체의 구조 혹은 상호작용 유형을 변형시킨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역기능 적이고 병리적인 가족의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개선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④ 가족 놀이 치료

놀이 치료와 가족치료의 원리를 통합한 가족놀이 치료는 아동을 포함한 가족을 치료할 때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건강한 상호작용 모델을 만드는 매력적이고 유쾌한 치료기법이다.

가족놀이 치료에서는 가족을 놀이에 참여시킴으로써 아동의 행동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반응을 알려주는 한편 아동으로 하여금 놀이를 통해 자신의 공포와 염려를 표현함으로써 얻게 되는 개별 치료의 효과가 있다.

(2) 성학대 치료

① 개인치료

성 학대 받은 아동들 특히 가족구성원에 의해 학대받은 아동들은 대상으로 개인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관한 문헌은 매우 적다. 성적으로 학대받은 아동들은 흔히 성학대가가 있기 이전에 이미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던 역기능적인 가족들의 구성원들이다. 만일 치료가 아동 희생자에게만 초점을 두고 가족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간과한다면 아동을 위한 개인치료가 효과를 거둘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사 개인치료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가족 또한 치료에 참여하게 될 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치료자는 아동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다시 말하도록 격려할 수 있을 것이며 일어났던 일에 대해 아동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아동자신의 삶에 대한 정신적 충격의 영향을 아동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치료자의 그 다음 임무는 아동이 현실적인관점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인데 이는 죄책감이나 자기비난, 그리고 학대에 대한 책임 등을 포함한 부적절한 결론을 수정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 놀이치료

치료자는 놀이를 통해서 아동이 희생의 결과로 경험할지도 모르는 갈등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이야기 꾸미기는 아동들이 자신들의 성적 희생에 관해 말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예를 들어 이야기 꾸미기는 아동들이 자신들의 성적희생에 관해 말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료자는 아동과 연령이 비슷한 어떤 아동에게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다. 치료자는 아동이 성적 학대를 상징하는 끔찍한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에게 이야기의 끝을 완성하도록 요구한다. 하나의 대안적 접근으로 아동에게 가능한 한 가장 끔찍한 이야기-치료자가 끝을 맺음-를 말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동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잘 다룰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치료적 상황에서 충격을 드러내고 재 경험하게 할 때 치료적인 역할은 학대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학대받는 동안 전달되었던 파괴적인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의문을 갖고 탐색하며 없애 버리게 도와주는 것이다. 성학대는 어린 아동들에게 위협적이며 불안을 일으키는 문제이다. 놀이치료는 아동과 학대의 주제를 탐색할 때 불안을 감소시키면서 학대에 관한 대화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할 수 있다.

- 미술치료

아동의 마음속애 있는 가장 깊은 생각과 걱정거리를 드러내게 하는 강력한 투사적 도구이면서 정화의 효과가 있다. 미술은 아동들의 충격적인 경험을 시각화해 보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특히 충격적 경험을 아동들이 자신을 정서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이다. 성적학대에 공통적인 위협은 '학대사실을 절대로 말해 선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아동들에게 이것은 학대의 경험을 언어로 말하는 것은 위험스런 일이란 것을 의미한다. 비언어적인 미술치료는 이런 부담과 두려움을 감소 시켜준다. 그리고 아동들이 집단으로 치료받을 때 놀이를 위한 대본을 아동이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대본에 따라 자신들이 희생당한 것에 대해 캐릭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행동화 할 수 있다.

② 집단치료

집단치료는 잠복기 아동들과 청소년의 성학대 희생자들 그리고 때로는 보다 어린 아동들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기법이다. 집단치료는 개인치료에 비해 덜 집중적이며, 집단이라는 환경이 개인치료보다 덜 위협적일 수 있다.참여자들은 또한 집단치료를 통해 성적 희생의 결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줄일 수 있으며 지지적인 감정을 얻게 된다, 집단에서 신뢰감이 발달함에 따라 희생자들은 다른 집단 구성원들의 경험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며 때때로 자신의 경험을 인식할 수 없거나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신의 희생과 학대가 자신들의 심리적 기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③ 가족치료

치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치료하는 것은 종종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가족 구성원 전체가 치료자의 중재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치료는 가족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재결합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가족이 초기에 하나의 집단으로 함께 면담되어서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아버지인 경우 가족구성원 개개인은 초기에 개별적으로 치료를 받고 다음 순서로 엄마와 딸이 함께 마지막으로 다른 형제자매들이 함께 치료를 받게 된다. 가족 내부의 성학대인 경우,m 가해자인 아버지는 치료 끝 부분까지 가족치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낄 때까지 가족치료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의 학대의 책임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아동의 치료를 위해 가족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실수이다.

치료목표는 희생자의 분노를 인식시키고 이를테면 자기 자신에게 보다는 가해자와 같이 적절한 대상에게로 분노의 방향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아동은 분노를 표현하지 않거나 분노를 정당한 감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로 방향을 돌릴 때 우울증이나 자기 파괴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Ⅶ. 아동학대 예방

1)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

① 아동학대는 어린이를 죽일 수 있다.
→ 많은 어린이들, 특히 한 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부모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
② 학대 받은 아동은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게 느낄 수 있다.
→ 신체적, 정신적 상처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할 만큼 심각한 상처일 수 있다.
③ 아동학대는 신뢰를 파괴 한다.
→ 아이들은 가족들 속에서 신뢰를 배우지만 학대 받은 아동은 부모를 믿을 수 있기에 신뢰가 요구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④ 학대행동은 다른 세대로 전수된다.
→ 아동들은 그 자신의 아동기에 부모 역할에 대한 대부분의 것을 배우게 되므로 학대받은 아동들은 그들 자신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학대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⑤ 아동학대의 예방이 치료보다 효과적이다.
→ 학대 받은 아동의 치료는 어렵고, 시간이 소모되며 효과도 없다. 아동학대는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다.
⑥ 아동학대의 예방은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을 감소시킬 것이다.
→ 아동학대와 성장 후의 범죄, 약물남용, 사회부적응, 그리고 결혼 부적응과 성문제 등은 상관관계가 깊다. 아동기에 학대 받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들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⑦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헌신은 사회의 성숙을 나타내는 증표이다.
→ 정말로 우리 사회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염려한다면 우리는 어린이들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착취로부터 자유롭게 자랄 수 있게 하여야한다.

Ⅷ. 이럴 때는 이렇게 - 엄마가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방범교육

* 낯선 사람, 위험한 사람에 대한 대비책

✓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지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다. 상냥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라고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 혼자 길을 걷고 있고나 어둑어둑한 저녁에는 상냥해 보이는 사람이 접근하더라도 경계해야 한다.
✓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오더라도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간다. 그래도 계속 말을 걸어오면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죄송해요” 라고 말하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친다.
✓ 낯선 사람과 말을 나눌 때에는 그 사람이 손을 뻗어도 몸에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다. 만약 가까이 다가오면 즉시 도망친다.
✓ 아빠나 엄마가 사고를 당했다면서 접근해오는 사람이 있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굳이 그 말을 믿고 따라가지 않아도 나중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거나 집에 돌아가면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 낯선 사람이 등 뒤에서 끌어안았을 경우에는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한다.
✓ 낯선 사람이 등 뒤에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입을 막았다면 그 사람의 새끼손가락을 움켜쥐고 꺾는다.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이렇게 하면 고통을 느껴 입을 막고 있는 손을 놓게 된다. 그 때 있는 힘을 다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른다.
✓ 낯선 사람이 주는 물건이나 음식을 절대로 받지 않는다.

* 혼자 있을 때의 대비책

✓ 백화점 같은 장소에서 엄마를 잃어버리면 즉시 아무 가게나 들어가 그곳 점원에게 사실을 알린다. 또는 안내원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한다.
✓ 빈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주위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간다.
✓ 빈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큰소리로 “다녀왔습니다.” 하고 외치며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혹시라도 주위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면 집안에 어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 집에 혼자 있을 때 전화가 걸려오면 절대로 받지 않는다. 만약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다면 집에 어른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다.
✓ 외출 할 때에는 자동 응답 장치가 동작하게 만들어둔다.
✓ 집에 혼자 있을 때 손님이 찾아오면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설사 아는 얼굴이라고 해도 혼자 있을 때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반드시 벽에 등을 대고 서도록 한다. 이렇게 해야 뒤에서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사라진다.

* 위험한 장소

✓ 길에서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에 자동차가 있으면 멀리 돌아간다.
✓ 시끄럽게 떠들거나 장난을 치면서 걷지 않는다.
✓ 길을 건널 때에는 서두르지 않는다. 반드시 신호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어른들과 함께 건 너도록 한다.
✓ 지저분하고 음침한 놀이터에는 가지 않는다.
✓ 공사현장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주차장에서는 놀지 않는다.
✓ 날이 어두워진 뒤에는 혼자 다니지 않는다.

* 성범죄

✓ 부모나 형제도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 신체 부위를 만지려는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니까 피하도록 한다. 그리고 즉시 엄마 아빠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명함을 건네면서 탤런트를 시켜 주겠다거나 사진을 찍어준다는 등으로 접근하는 사람의 말에는 대응하지 않는다.
✓ 옷이 물에 젖었을 때, 부모나 형제가 아닌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옷을 벗으라고 하면 절대로 벗지 않는다.
✓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이웃집 아저씨, 또는 사촌오빠가 ‘의사놀이’ 등을 핑계로 몸을 만지려고 하면 강력하게 저항하고 즉시 엄마 아빠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IX. 사례 및 동영상

1) 사례

사진	사례
	이 름 : 김명구(가명) 성 별 : 남 나 이 : 만 6세 명구는 부모님 없이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형 두 명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명구 이웃에 의해 신고를 받고 신고자에게 제보를 받은 내용은 형들이 학교에 간 후 동네 아저씨 몇 명이 명구네 집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명구는 지금 서울 oo 병원에서 신체적 치료와 함께 미술치료를 통한 정서적인 치료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명구의 아픈 기억이 지워질 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이 름 : 김범준(가명) 성 별 : 남 나 이 : 생후 9개월 범준이는 발견 당시 몸이 긴 천 기저귀로 둘둘 말려 있었고, 기저귀는 빨래집게로 물려있어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얼굴에는 손톱으로 꼬집힌 자국과 살점이 떨어져 나간 자국, 왼쪽 뺨에는 뺨크기 만한 화상 자국이 발견되었고, 입술이 심하게 부르터 있음은 물론,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지 않아 심한 발진과 여러 군데에 패인 상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원하지 않은 아이였다며, 범준이 엄마는 생후 9개월의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현재 범준이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퇴원한 후에는 피학대 아동을 위한 "좋은 이웃 쉼터"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름 : 장현석(가명) 성 별 : 남 나 이 : 만 5세 현석이를 처음 만났을 때, 현석이는 전체 몸의 30% 이상이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현석이는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양쪽 팔이 다시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고, 얼마 후 다시 대퇴골이 골절되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현석이 이름으로 된 보험을 4개나 들고 자신의 아이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보험금을 탄 것입니다. 현재 현석이는 입원치료를 마치고 시설에 입소되어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름 : 이철희(가명) 성 별 : 남 나 이 : 만 6세 철희는 1년 전 수원 1391에 신고 된 남자아이입니다. 친모와 계부에 의해 수시로 폭행을 당하다가 이웃의 신고로 구출되었습니다. 각목, 허리띠, 심지어는 다리미로 이곳저곳을 때려서 상처가 많은 철희는 지금 서울의 oo병원에서 1년 동안 장기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교육 인형극	주인공 : 한순결, 옆집아저씨,천사

(어린이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순결이)

순결 : 랄라라 라라라..... 엄마가 피자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얼른 가야지~

(집앞)

나레이션 : 집앞에서 옆집 아저씨를 만나는데~

아저씨 : 순결이 어디 다녀오는 길이니??
순결 : 어린이집 다녀오는 길이에요.
아저씨 : 그렇구나. 아저씨네 집에 케익이 많아서 혼자 다 먹기에 힘들어서 그러는 데 같이 가서 먹지 않을래?
순결 : (음.. 엄마가 피자를 만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어쩌지?...)
아저씨 : 아저씨네 집에 가면 초콜릿도 있는데 같이 가자~
순결 : (에이, 모르겠다) 네~ 알겠어요.
나레이션 : 집에 와서 아저씨는 문을 잠근다. 그리곤 방에 들어가는데.....
순결 : 꺄~악! (순결소리침) 하지 마세요~ 읍읍.....

나레이션 : 그날 저녁 순결이방. 시무룩하게 있는 순결, 천사가 나와서...

천사 : 순결아? 무슨 일 있었니?
순결 : 어.....음...
천사 : 괜찮아.. 내게 말해봐~
순결 : 오늘 ....낮에.....옆집 아저씨가....흑흑....내 몸을....흑....만졌어....
천사 :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건 부끄럽거나 잘못한 일이 아니야.. 순결이가 잘못을 한 것이 아니니까 지금 나한테 이렇게 용기내서 말한 것처럼 엄마한테 가서 말을 해봐~
순결 : 응~ 알았어.
천사 : 그럼 나 갈게~ 안녕!
순결 : 잘가~ 안녕!



2) 동영상

① 아동학대 민정이 사례 (http://wizard2.sbs.co.kr/resource/template/contents/44_netv.jsp?vProgId=1000119&vVodId=V0000247741&vMenuId=1008674&uccid=10000362156&vAdId=013001&vAdCode=22FZZ&div=NAVER)
② 민정이를 안 보내는 부모 (http://netv.sbs.co.kr/newbox/newbox.jsp?uccid=10000020249)
③ 민정이 보호를 위한 센터의 노력(http://netv.sbs.co.kr/newbox/newbox.jsp?uccid=10000182501)
④ 경찰에서 아이들에게 위축되지 않도록 진술한다는 내용(성학대)(http://news.naver.com/vod/vod.nhn?mode=LSS2D&office_id=055&article_id=0000003487)